

풍류달빛공연·씻김굿 온라인으로 만난다

광주문화재단, 풍류공연 TV 방송
송가인 어머니 송순단 출연 씻김굿도
남도국악원, 금요국악공감 무대
국악무도 '씻김' 유튜브 공연



광주문화재단과 국립남도국악원은 다양한 국악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사진은 국악그룹 우리소리 바리자지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다양한 국악 공연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과 국립남도국악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은 '제2회 풍류달빛공연'을 5월 2일 오전 5시 TV 프로그램 '우리가락 우리문화'를 통해 방송하며, 9일 오전 10시에는 광주지역 특집 방송 '2020풍류달빛공연'과 유튜브 '광주MBC-엘씨구 TV'를 통해 동시에 선보인다.

첫 무대에는 국악신동 김태연·김선재가 등장해 '흥보가' 중 '두 손 합장', '춘향가' 중 '퇴령소리', '사랑가', '배 띄워라', '엄마아리랑' 등을 선보인다.

이어지는 무대는 진도 '씻김굿'으로 채워진다. 무대에는 진도 씻김굿(중요무형문화제 제72호) 전수조교이자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인 송순단과 송가인의 오빠 조성재가 속해 있는 국악그룹 우리소리 바리자지가 올라 합동 공연을 펼친다. '초가방석', '제석굿', '비손', '액막음', '희설', '무취타', '길뒹뒹' 등 총 7곡을 선사한다. 방자의 영혼이 국

악에 가도록 인도하는 진도 씻김굿 무대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낸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의 5월 첫째 주 금요국악공감 무대에는 국악단체 국악무도가 올라 '모던레퀴엠-씻김'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5월 1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국악무도는 '연극과 음악의 길에 정답도 끝도 없다'는 뜻을 가진 단체로 국악, 연극, 밴드 등 각 분야의 예술가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국립남도국악

원 금요국악공감 외부 단체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모던레퀴엠-씻김'은 한국 고전 소설 '심청전'을 연극으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으로 심봉사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현실감 있게 그린다.

국악원은 공연 관람에 참여한 관객들의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20명에게 커피 쿠폰(1만원)과 문화상품권(1만원)을 제공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남도 공간성 모티브로 예술·자연 심미안 펼쳐

임원식 광주예총회장 17번째 시집 '생각하는 정원' 발간

"우주의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나무나, 바위나, 꽃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로 나는 새처럼 속삭여준다. 신은 그네들의 목소리를 보고 듣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주는 생동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시의 눈빛으로 만나서 우주의 생명을 얘기하고 싶다. '생각하는 정원'에서처럼 서로 다른 언어와 몸짓으로"

광주예총 회장 우전(宇田) 임원식 시인이 17번째 시집 '생각하는 정원' (사의제)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남도'라는 지역성과 공간성을 모티브로 사람과 예술, 자연의 심미안을 펼쳐낸다. 모두 80여 편은 작품은 문신 시인(우석대 교수)의 표현대로 '남도의 특수한 역사적 삶과 감각을 변별적인 심상으로 다듬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은 원초적인 고향 해남에 대한 단상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광주, 그리고 인접 지역인 곡성, 진도 등을 토대로 남도성을 주목한다. 판소리, 민요 등 같은 예술세계와 이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시각, 특유의 예술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준다.

"서석대에 오르면/ 빛고를 광주/ 한눈에 들어온다// 광주는 시의 도시이다/ 광주는 그림의 도시이다/ 광주는 춤의 도시이다/ 광주는 노래의 도시이다/ 아니 광주는 함성의 도시이다// 서석대에 오르면/ 내 눈은 흐려진다/ 5·18의 그날이./ 그날의 함성이, 총소리가/ 민주주의가 떠오른다"



위의 '서석대에 올라'는 역사적 상흔을 입은 광주, 다른 아닌 '남도'를 주목한다. 전통과 서정 이면에 가려진 아픔을 시적인 감수성으로 환기하면서도 우리 시대의 남도의 의미를 되새긴다.

또한 이번 시집에는 고향 해남을 다룬 시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해남'과 '어머니'는 동격의 시어다. "해남아,/ 어릴 때 동무 이름처럼/ 부르며// 어어어 어어어/ 바다가 저만치서/ 달려오고(중략)// 꿈속에서도/ 해남은/ 어머니의 품속이 된다"라는 표현에서 보듯 시인의 작품세계 원형질은 어머니로 치환되는 '해남'이자 '남도'이다.

문신 시인은 해설에서 "그는 '남도'라는 지역성을 시의 지평으로 삼는다. 이 지평 위에서 그의 시집 '생각하는 정원'은 남도의 자연과 남도의 인간이 추동해낸 남도의 예술적 감각과 정서를 탁월하게 그려낸다"고 평한다.

한편 임 시인은 광주시인협회·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시집 '당신의 텃밭', '매화에게 묻다' 등과 평설집 '빛의 언어와 소리의 사유', 수필집 '단풍나무가 사는 집' 등을 펴냈으며 광주문학상, 창조문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 여파 청소년 소설·자녀 교육서 인기

'아몬드'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더 해빙' 등 재테크 책도 주목

코로나 19 여파로 오프라인 개학이 늦어지면서 청소년 소설과 자녀 교육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부와 재테크를 다룬 서적도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집콕 시간 증가로 청소년 소설 판매가 대폭 늘었다. 교보문고는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청소년 소설이 10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학이 연기된 지난 50여 일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더글라스 케네디의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김선영의 '시간을 파는 상점'이 뒤를 이었다.

자녀 교육서 또한 올해(3월 1일-4월 20일) 전년 동기 대비 36%가 신장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생활 분야가 올해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16% 상승했는데 가운데 자녀교육 관련 도서가 동기전 대비 36%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스트셀러 4월 2주차 가정생활 베스트셀러는 1위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2위 '매



타 인지 학습법', 4위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 등 10위 내 모두 6종이 올라 전년도 3종에서 2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청소년 전체 부문이 같은 기간에 비해 83%가 올랐다.

에스 24는 부와 행운의 비밀에 대한 수만 건의 사례 분석과 성찰을 담은 '더 해빙 The Heaving'이 4월 넷째 주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 해빙 The Heaving'은 '부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오늘날, 과연 보통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묻는다. 저자 이서운은 수만 건의 사례를 직접 분석하고 동서양의 고전 및 심리학, 양자물리학과 뇌과학 등을 토대로 부와 행운의 세계를 알려

준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주식투자의 원칙을 담은 '선물주는 산타의 주식투자 시크릿'이 9위에 올랐으며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자 존 리의 투자 입문서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지리가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팀 마샬의 '지리의 힘'도 tvN '요즘책방' 방영 이후 순위 역주행을 해 2위에 올랐다. 저자는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눠 '지리의 힘'이 오늘날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자메이카 헬스클럽'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유·스퀘어 제공>

유·스퀘어 문화관, 연극 '자메이카 헬스클럽'으로 공연 재개

5월 1일~31일 동산아트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유·스퀘어 문화관이 공연을 재개한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산아트홀에서 로맨틱 코미디 연극 '자메이카 헬스클럽'을 선보인다.

운영난을 겪다 결국 폐업 위기에 처한 자메이카 헬스클럽. 다 쓰러져가는 헬스클럽을 살리려 고군분투하는 사장님, 교통사고 후 체중이 불어버린 한물 간 여자 연예인, 떨어져 사는 아들을 그리며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젊은 엄마 등 저마다 사연을 지닌 뜻밖의 인물들이 이곳에서 의기투합하기 시작한 다. 이들은 헬스클럽을 다시 일으키고, 과거 잘나갔던 연예인 지성미의 방송 복귀를 도울 수 있을까?

자메이카 헬스클럽은 코믹한 속에 각각의 인물들의 좌절과 아픔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리며 헬스, 타바타, 스피닝 등의 운동은 물론, 난타 퍼포먼스까지 추가하여 기존의 연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재미를 더했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관객 분들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친구, 가족, 연인들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으로 모두가 한바탕 웃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티켓가격 3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선의 신작 시집

꽃, 향기의 밀서

꽃, 향기의 밀서
조선의 시집

본시 땅위에 길이 없어 가는 사람에게만 길이 된다. 꽃도 풀이었다가 꽃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꽃이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꽃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뿜어야만 꽃의 생애가 보이고 향기의 밀서도 받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오롯이 쌓아올린 철용성이 침묵의 결박을 풀고 물마루를 건너와 이야기하는 물옥잠의 향기로온 밀어 귀를 기울인다. 꽃의 속삭임에는 애처로운 누이의 생애와 어머니의 새카맣게 애간장 타는 속삭음이 있다. 꽃마다 대지의 조근조근한 숨길을 건너온 계절이 있다.

- 김광희시인

조선의 시인은 꽃의 시인이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한 사물을 호명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조선의 시인은 우리의 인식망에서 멀리 있던 실제 꽃들을 찬찬히 불러들여 고유의 향기를 부여했다. 꽃은 향기로 숨 쉰다. 그래서 꽃은 향기로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시인의 꽃시는 꽃을 읽은 우리 시단의 꽃시이요, 향기 없는 세상의 꽃씨다. 시인의 시집을 읽노라면 마치 시인이 테리고 나온 꽃들과의 나들이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향기 풀풀 나는 초대연에 한껏 취하고 만다.

- 김원수시인

시인 조선의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김만중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현. 서은 문병란 문학연구소 초빙교수	기독신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	---	-----------------------------------	--------	---------------------------------------	-----------------------------------